

제 167호 (2019년 10월 15일 창간) |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www.wunionnews.com

대표전화 : 1899-2026

인터뷰 (주)세정파트너스 회장 권영안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동산개발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경기도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난항이 지속되면서 또다시 PM사업자에 대한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여서 다가오는 5월 25일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발표한다는 조합측의 소식에 따라 본지는 부동산개발 전문회사인 (주)세정파트너스의 권영안 회장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리 회사가 NPL채권 인수방식으로 체비지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을 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저희 회사는 국내 최고의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금융주간사인 교보증권과 함께 조합원들의 오랜 바램인 조기착공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용인 역삼지구는 오는 2023년까지 상업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개발되는데 총 몇 세대의 아파트와 주민 몇 명이 입주 가능한 것인가? 또한 준공 예정일은 2023년으로 차질은 없는지?

역삼지구 개발사업은 향후 4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상복합용지에는 5,256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약 14,000여 명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용인시 역삼지구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어떠한 모습인가?

용인시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도록 미

래 비전을 제시하는 단지로 특화할 계획이며, 특별히 기입지한 용인시 문화복지 행정타운의 업무지원 기능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조합의 재공모 절차로 인해 용인시를 비롯한 조합원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 또다시 담보상태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 1차 공모에 선정된 업체도 결국 체비지를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여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차 공모도 저희 회사만이 해결 할 수 있는 체비지 문제를 도외시한 채, 또다시 공모를 진행하고 있어 사실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NPL채권 형식으로 공매되어 양·수도 절차가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NPL채권에 포함된 사업권 등에 대한 공탁해지가 불가능할 수 밖에 없어 서로가 소송을 하다가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Photo News

‘평화의 소녀상’ 돌로 찍고, 말리는 시민 폭행



정의기억연대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중심이 돼 만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폭행,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서울 동작구 소재 평화의 소녀상의 얼굴 부위 등을 돌로 찍고, 이를 말리는 30대 남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돼 출동한 경

찰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폭행을 당한 남성과) 또 다른 2명에 의해 제압됐다”며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떻게 생각하는지?

가압류건은 해방공탁에 의해 강제해지가 가능하지만, 가처분권은 공탁이 불가능하고 오직 소송에 의해서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민간 내부 갈등과 지역별 사업성 부족 등이 원인이었는데,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린다.

이번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중단 될 가능성은 있는가? 또한, 사업일정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인지?

사실 도시개발사업은 이권이 있다보니 이해 관계인들끼리 충돌이 불가피하여 각종 소송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서로가 소송을 하다가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도시개발사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가 NPL채권을 인수하여 각종 소송을 마무리 짓고, 조기 착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사업을 진행한다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

우리 회사는 조합원님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조기에 실시하고, 사업비가 초과되더라도 조합원님들의 추가 부담금 없이 국내 최고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책임 준공하여, 조합원님들의 재산을 지켜드리고,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이 사업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송원기 기자 mbc0300@gmail.com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까다로운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개인 위생
매뉴얼 준수



위생 전문가의
관리



철저한
소독·살균



안성시농업인새벽시장, 보도블럭침하 시민 부상‘속출’

**폐 보도블럭 위 덧씌우기로 부실공사 ‘의혹’도 불거져
지난해 보수한 옆 보도 블록이 적은 량의 비에 침하**

지난 17일 새벽 경기 안성시농업인자거리 새벽 시장내 인도에서 보도블럭 침하로 새벽시장을 찾은 상인과 시민이 부딪치고 넘어져 발목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지난해 보수한 옆 보도 블록이 몇일 전 내린 적은 량의 비에도 견디지 못하고 침하(땅꺼짐)되어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됐다.

문제의 블록은 보도블럭교체 공사 과정에서 블럭 위에 블럭을 덧씌우는 임시방편의 부실공사로 인해 예

견된 사고였다는 일부 시민들의 주장이다.

안성농업인자거리새벽시장은 안성시 도기동 일대에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300여명의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각종 농산물 등을 갖고 나와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매일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5시간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장이 미뤄져 오다 지난 8일에서야 개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급히 현장을 방



문 사실관계를 확인, 점검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유기영 기자

안산시, 2020년도 도로점용료 25% 감액 추진

소상공인등4천여명, 7억4천여만원혜택
코로나19로 위축된지역경제활성화지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 등 4천368명의 올해 도로점용료 25%인 7억4천여만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면면할 수 있다.

이번 감액 조치의 지원대상은 계

여주시 내달부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시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월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해 관내에 설치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해 6월14일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6월15일부터 단속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달 16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기업동 165-4 이마트몰류센터 입구 앞, 강천면 굴암리 131 굴암 교차로 구간이다. 이 구간은 불법주정차 지역특성/단속인력 한계를 감안해 불가피하게 단속시간을 평일, 주말/공휴일 포함해서 08:00~20:00시(연중)까지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설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되었다”며 “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주/유기영 기자

김해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안 의견수렴

경남 김해시는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할 노선개편안을 마련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처럼 전면적인 노선 개편이 추진되기는 지난 2011년 9월 부산김해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실시한 이후 10년만이다.

시민의견 수렴은 이날부터 31일 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며 노선개편안 자료는 홈페이지 설문조사 참여 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는 노선별로 노선번호, 해당 지역, 의견내용 3개 문항의 제안을 기본으로 복수 제안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김영도 기자

이에 앞서 시는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내버스 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 그 결과와 그동안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노선개편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규정에 의해 이번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 이외의 목적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 안목의 노선개편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시설물 관리실태,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 태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여름철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명숙 도 민생안전과장은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이 잠시 여유를 가지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추진에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지방비 예산을 4억 3천만 원을 확보해 물놀이 지역의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코로나19 함께 이겨낼수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주시민축구단, 2020년 K3리그 우승을 향해 뛴다



경북 경주시민축구단이 K3리그 개막을 맞아 지난 14일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시 관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의 선전을 다짐하며 리그 우승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K3리그는 올해부터 상위리그였던 내셔널리그의 강릉시청, 대전코레일 등 8팀과 K3리그 화성FC, 김포시민축구단 등 8개 팀 등 총 16개 팀으로 이뤄져 대회를 운영하게 된다.

올 시즌 K3리그는 15개 팀과 한 차례씩 경기를 치른 후 성적에 따라 상위스플릿(8개팀)과 하위스플릿(8개팀)으로 나뉘, 이후 각각의 스플릿 리그별로 팀당 7경기씩

경주/한반식 기자

농업분야도 벤처시대, 경북 1호 농식품펀드 조성!

지역특성화 펀드 110억 원 조성
창업하기 쉬운 투자 환경 만든다

농업분야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돈이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경북도가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꾼다.

경북도에서는 농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북도 1호 농식품펀드를 조성하고 지원 한다고 밝혔다.

가칭 「힘내라 경북! 지역특성화 펀드」명으로 운용하게 되는 경북도 농식품펀드는 농림축산식품부 모태펀드 50억 원, 경북도 30억 원, 민간투자 30억 원의 재원으로 총 110억 원이 조성되며, 경북도내에 있는 농기업체는 물론 경북도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무담보 지분투자 또는 무담보 채권투자 형태로 지원하게 되어 지원 조건도 크게 바뀌게 된다. 자격 기준, 신용도, 담보 등의 제약요건이 없어지고, 아이디어와 사업성만을 평가하고 지원해 청년들의 농업분야 벤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 (18, 100억 원 조성)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게 되는 경북도 농식품펀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서 5월 15일부터 공모를 통해 6월중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게 되며, 펀드운용조합이 결성이 되는 올 9월부터는 본격적인 투자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년부터 8년간 운영하게 되는 「힘내라 경북! 지역특성화 펀드」는 전체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경북도내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초과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펀드운용조합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많은 도내 농기업체가 유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농업농촌을 둘러싼 신규투자가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청년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봉화교육지원청 Wee센터, 연수 통해 전문성 향상

학업중단예방 및 상담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위기학생 상담 지원 효율성 제고 위해 실시

경북도봉화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는 '학업중단예방 및 상담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6월 2일까지로 한 이번 연수 대상은 관내 초·중·고 Wee프로젝트 업무담당자 및 교원, New-Start 전 입상담원으로 연수를 통해 전문성 향상 및 위기학생 상담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온라인 연수(○○원격교육연수원)는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운영으로 「성격평가 질문지(PAI)의 해석과 활용」, 「아들러 심리학으로 알아보는 긍정훈육법」, 「교실에 대한 학생들에게 내 마음 속 이상심리」, 「교실사례로 풀어가는 교실이야기- 문제유형별 상담사례 30부의 말도 없지 않았다.

이에 걸 교육장은 "업무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연수를 수강해 단위학교별 학생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각



사례에 맞는 상담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지도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도 없지 않았다.

봉화/정승조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협의회, 현혈문화확산운동



혈액수급난 극복 '현혈 릴레이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업무협약'

경북도는 바르게살기운동경북도협의회에서 지난 18일부터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협력해 12개 현혈권역별 회원 600명(권역별 50명)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현혈문화 확산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 현혈권역(12개)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청송·영양·영덕·울진, 문경·예천, 영천, 삼주·의성·군위·영주·봉화, 경산·청도, 고령·성주·칠곡

이번 현혈 운동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에 따른 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개인 및 단체 현혈이 취소되어 혈액 수급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바르게살기 운동중앙협의회와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4월 22일 혈액 부족 문제 공동 해결 및 각종 인도주의 활동과 사회적 가치 활동의 상호협력을 내용으

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마련되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협의회는 1989년 3월 24일 창립하여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 아래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기초 법질서 지키기,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안전문화 정착 등 사회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성금 기부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방역 활동과 코로나 피해 농가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 날 현혈에 직접 참여한 이종평 경북도협의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협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조 기자

경기도, 하남·별내선 건설현장 안전점검한다

경기도, 하남·별내선 철도건설공사현장 화재 예방·우기 대비 안전관리 실태점검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하남·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우기철 집중 호우 대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참사로 대형공사현장의 산재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고조되는 가운데,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대상은 경기도가 직접 시행중인 하남선(4·5공구)·별내선(3·4·5·6공

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6개 현장으로, 건설사업관리단 소속 구조, 토질 및 기초, 시공, 소방 및 안전분야 기술자 등 관계 전문가와 협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반은 화재 대비 전기시설이나 노동자 대기시설·숙소 등의 소방안전관리실태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실태, 가시설 구조물에 대한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아울러 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지반·절토부 침하 및 굴착사면 유실 여부, 발전기·양수기 등 수방장비·자재 확보상태, 교통처리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수원/김승곤 기자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그램 "감사해요, 대한민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유아 및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독립운동기념관 애코백 만들기와 태극기 스트링아트, 태극 독도부채 만들기 등 총 4종 체험키트를 제공한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순국

선열의 호국정신과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5일부터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수령방법은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기념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수령하면 된다.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들에게 힐링의 시간은 물론 호국보훈의 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포/차덕문 기자

이천시, 화재 유가족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

한의스프레스 화재 유가족 돋기 위해
이천시민과 사회단체들 힘 모아 구성

한의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유가족을 돋기 위해 지난 8일 이천시민과 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구성한 '이천시 범시민 추모위원회'가 18일부터 합동분향소에 머물며 유가족 지원에 나선다.

이천시 범시민 추모위원회는 4월 29일 발생한 한의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과 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만든 협의체다.

추모위원회는 미래이천시민연대, 이통장단협의회, 새마을이천시지회, 이천노인회 등 이천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78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이천시의원 및 도의원 등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8명의 공동위원장장을 선출하고 18일부터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교대로 머무르면서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유족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살피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화재참사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고, 시민들의 주도 참여를 유도하며 향후 밤인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분향소에 현장시장실을 마련하고 유가족들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들으며 직접 소통하고 있는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천시 범



시민 추모위원회와 관계공무원들이 유족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살피고 지원함에 따라 시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유가족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밭주처와 시공사의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 내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천시민들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4월 29일 한의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아홉 개 반을 편성하여 재정, 장례, 유가족지원, 의료구호 등의 업무를 담당부서와 협업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화재 발생 다음날인 4월 30일 6급 이상 공무원 38명을 화재사고 유가족과 연결해 1:1전담공무원을 운영하며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까지 한 사람의 공무원이 함께 하면서 모든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숙소 마련과 건강관리, 식사 등을 챙겨주고 있다.

이천/유기영 기자

양평군 서종면 마음까지 치유하는 한의원 있어

지난해 개업식 비용 200만원에 이어,
올해는 이웃 감사 성금 300만원 기부

아픈 이웃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료하는 착한 한의원이 있다. 바로 지난해 6월 개업식 대신 20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문을 열고, 1년 만에 다시 3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고 내놓은 서종면 동진한의원(손수명 명예원장, 손승현 대표원장)이다.

"한의원이 문을 열고 자리를 잡는데 평균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저희 한의원은 문을 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희를 찾아 주시고 좋은 평판을 만들어 주신 이웃들 덕분이다. 좋은 이웃들을 만나 받은 사랑을 나누어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의원 운영이 안정적인 건 손씨 부

자의 뛰어난 의술 덕분이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물론 한의사로서 항상 최선을 다한다. 게다가 양평은 물맑고 공기도 깨끗해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좋은 축복받은 동네다. 정이 넘치는 이웃까지 있다. 사람과 환경이 모두 좋아서 저희도 그 덕을 보는 것 같다"며 겸손한 답변이 돌아왔다.

신희구 서종면장은 성금을 전달받고 "지난해에 이어 기부해 주시는 원장님 같은 분이 많아 서종이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이 되어 간다. 이 성금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을 찾아 일뜰하게 사용하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손씨는 "이번 나눔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의 아픈 몸과 함께 마음까지 치료하는 따뜻한 의술을 쭉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양평/이근학 기자

도심 속 자연 안식처

작은쉼터 캠핑장

<주요시설>

풀장&카라반 내부

매점

NAVER 작은쉼터 애영장

경기도 시흥시 죽율로 25(죽율동)
031-431-6660

광명시장, “5·18 민주화 가치 소중히 이어나갈 것”

광명시, 5·18 민주화운동 첫 기념 문화행사 가져

민주주의 씨앗을 가꾸어 오신 영웅들을 기억해 주길

광명시는 16일 철산동 상업지구 중앙광장에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문화행사 ‘민주시민·365-민주생활’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과 곧 다가올 6·10 민주항쟁을 맞아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와 더 나은 세상을 꾸꾸었던 수많은 분들의 헌신을 광명시민과 함께 되새겨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조미수 광명시의장, 관내·외 주요인사, 청소년, 청년, 예술가, 시민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광명시 청년 최찬희 군의 5·18 민주화 운동 주모 자작곡 ‘무색의 향기’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5·18에 단순히 지난날 일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 제대로 알고 기억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5·18 민주항쟁 희생자들과 오랜 시간 민주주의의 씨앗을 가꾸어 오신 우리 시대의 수많은 영웅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광명시는 5·18 민주화 운동에서 보여준 평범한 시민들의 용기를 잊지 않을 것이다 광주의 시민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적 진실이다. 수없이 많은 청년학생들이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자리를 왔다. 숭고하게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 삶에서 더 소중히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미수 의장은 “40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했던 시민의 힘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회적 연대의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모든 광명시민이 함께 민주시민으로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5·18의 실제 아픔과 한을 간직한 5·18 민주항쟁 김법태 시민협상대표는 당시 광주의 현장과 억울하게 희생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시대적 아픔을 공감하는 시간이 됐다. “5·18 4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행사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김종률 작곡가가 참석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하게 된 배경과 함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중에 문화예술이 가지는 전달력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5·18민주항쟁이 교과서에서만 다를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로 꽂 피워야 5·18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는다.

5·18의 의미와 뜻이 문화예술로 승화되어 민주시민·365-민주생활로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최찬희 군의 두 번째 자작곡 ‘거두어 주오’와 광명시청

소년재단 오름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연합팀 강현아 디렉터 외 15명이 준비한 ‘5·18 민주화 운동 뮤지컬’ 공연이 이어졌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참석자 전원이 제창하면서 헌화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광명시와 광명문화재단은 오는 6월 14일까지 철산 상업지구 광장 및 소하 아비뉴프랑 앞 광장 2곳에서 전시 및 지역예술가와 함께하는 5·18시민참여 프로젝트를 열어 ‘민주시민·365-민주생활’ 기념 문화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광명/정채우 기자

시흥시, 인공지능 기반의 안개탐지로 안전사고 예방

2020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검증사업
GIS 기반 안개탐지 및 스마트 관제서비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육상·안개 및 해무 등 저시정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에서 추진하는 ‘2020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검증확산 사업’ 신규과제 공모에 환경과학기술 컨소시엄의 수요기관으로 참여해 지난 4월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과제지원금 5억 7,000만원과 민간부담금 2억 1,000만 원 등 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IoT·AI 기반 안개탐지 및 스마트 관제서비스 검증사업의 실증을 진행한다.

본 사업으로 추진하는 ‘안개 탐지 및 스마트 관제 시스템’은 IoT 기반의 광산란 센서 및 시정센서를 안개 발생 위험지역 및 주요 관측 영역에 접종 설치하고, 딥러닝 기반 안개탐지 및 예측모델 분석기술 활용을 통



해 생산된 육상 및 바다 안개 탐지·예측 자료를 제공하는 지능형 서버 스트다.

이 서비스는 GIS기반의 안개 위험 관제 시스템을 웹과 모바일 앱 개발해 시의 다양한 정책활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시화 MTV를 거점으로 한 해양 클러스터 조성’, 국가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시가 실증 도시로 참여 중인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동력 프로젝트’와의 체계적인 연계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본 서비스를 통해 해양 클러스터 및 스마트시티 연계·확장, 상습 안개발생 주요도로의 안개위험 및 예측 정보 생산·서비스 실증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흥/길대성 기자

안산시민 10명 중 8명 “생활안정지원금 가계에도움”

생활안정지원금다온 효과 설문조사 실시
가맹점 업주들 “이용객·매출 모두 증가”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해 시민 1천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7%가 가계에 보탬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79.5%는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다고 답했다. 가맹점 업주 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모두 이용객과 매출이 늘었다고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이용자 1천515명과 가맹점 업주 24명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생활안정지원금의 효과를 파악하는 여론조사가 각각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 응답자의 81.7%가 생활안정지원금이 가계와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답했고, 79.5%는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84.6%가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 안산화폐 다온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

다고 답변하는 등 생활안정지원금과 다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히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온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모두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방문 손님과 매출액이 각각 10% 이상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37.5%는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들의 83.3%는 생활안정지원금이 다온으로 지급돼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하는 등 생활안정지원금이 실질적인 경기부양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온카드 사용액은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폭증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1억 8천만 원이었던 다온카드 하루 평균 사용액은 이달 들어(5.1~11) 3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등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 자체 조사에 따르면, 다온의 경제효과는 예산투입 대비 약 6배의 부가 가치 창출효과가 있고, 다온 사용액이 증가할수록 소득만족도와 소비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안산/길대성 기자

전곡읍 주민자치위원회 명품마을 만들기

명품사업 만들기 사업의 일환국사봉
산책로 무궁화 2,857주를 식재



전곡읍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윤혜숙)는 지난 5월 14일 명품사업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사봉 산책로를 따라 무궁화 2,857주를 식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윤혜숙 위원장을 비롯하여 회원 20명이 참석하였으며 아침 일찍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무궁화 식재에 힘썼다.

행사 중간에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광철 연천군수가 방문해 위원들을 격려하고 무궁화 식재에 힘을 보탰다.

전곡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은 연천의료원 위문방문, 4.15 총선에서 소독용 물티슈 배부, 감악산 등산로 정비행

사를 갖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봄소 실천하고 있는 단체이다.

윤혜숙 위원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부진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무궁화 식재에 힘썼다.”

행사 종간에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광철 연천군수가 방문해 위원들을 격려하고 무궁화 식재에 힘을 보탰다.

전곡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은 연천의료원 위문방문, 4.15 총선에서 소독용 물티슈 배부, 감악산 등산로 정비행

연천/김승곤 기자

화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면책까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승진 인센티브 제공
면책기준완화 보호관제도입 소극행정 타파

화성시는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따르는 대신 창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오는 6월을 시작으로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대우공무원 선발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특별 휴가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처벌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시는 오는 6월을 시작으로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대우공무원 선발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특별 휴가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 ‘2020년 화성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공포·시행했으며, 이달 4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했다.

화성/김용범 기자

코로나19 극복 일자리박람회 참가 기업 모집

용인시, 6월 17일 시민체육공원서
우수기업 면접·대리 접수 등 진행

용인시는 17일 코로나19 위기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 17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 일자리박람회 등 취업 행사를 연기·취소했지만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심화돼 일자리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코로나19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가운데 이번 박람회의 우수기업 면접·대리 접수를 받았다.

참여를 하려면 18일부터 29일까지 용인시 일자리센터(031-289-2262~8)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 가운데 고용 유지 가능성에 비롯한 4대보험 가입 여



부, 급여수준 등을 고려해 취업 확률이 높은 업체순으로 40곳을 선발할 방침이다.

면접 참여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이나 행사에 참가조차 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선 구직자를 연계해주는 간접접수관을 운영한다.

간접접수관에선 업체 관계자 대신 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이 구직자와 상담을 하고 조건에 맞는 업체에 이력서 등 서류를 전달해준다.

용인/유기영 기자

포천서 기업애로 원스톱처리 현장회의 개최

경기도가 ‘기업애로 원스톱처리 현장회의’를 15일 포천시 군내면 소재 용정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가구공동 전시·판매장 ‘마흘엔’에서 갖고, 포천지역 가구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행보에 나섰다.

‘기업애로 원스톱처리 현장회의’는 기업인들과 관련 기관·단체들이 직접 현장에 한데 모여 자금이나 인프라, 인력, 규제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황영성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 윤종하 포천구구 산업연합회장, 정동주 포천시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경기도, 포천시, 관련 공공기관, 포천지역 가구 기업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 대표들은 ▲가구산업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마흘엔 지원사업 조속 추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지원을 공

통적으로 건의했다.

도는 건의사항을 포천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법적 근거나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도출,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제 가구기업들도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춰 인테리어나 생활용품, 문화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때”라며 “가구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7기 경기도는 자생력 있는 가구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4개 분야 15개 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포천/김승곤 기자

고양시, '생활 속 거리 두기' QR코드 시스템 도입

신속하게 입력된 정확한 정보 활용

출입구 번잡 없애 방역망도 더욱 '촘촘'

코로나19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고양시가 또다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청사출입을 간편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방문자들의 인적 사항을 활용해 철저하게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상상황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와 킨텍스 캠페인 선별진료소에 이은, 고양시 만의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코로나19 대응방안이다.

지난 5월 6일, 이태원클럽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소

강국면에 제동이 걸렸다. 참석자들 중 일부가 거짓 인적사항을 남기는 바람에 확진자, 접촉자 등의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철저한 방문객 관리와 관련해 논란도 일었다.

고양시는 방문자들의 정확한 인적 사항 관리에 주목했다. QR코드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전에 정확하게 입력된 정보를 활용, 방문내역과 인적 사항을 장부에 적고 용건을 묻고 답하느라 어수선했던 출입구의 번잡함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또한 방문하는 모든 인원의 인적사항을 철저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방역망의 틈새도 철저하게 메울 수 있다.

우선 QR코드는 수기로 작성한 청사출입기록대장을 활용해, 스마트폰 QR코드로 불특정 다수의 방문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운영한다.

방문자는 개인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QR코드를 스캔하고, 개인 정보동의·방문자 성명·핸드폰번호·방문부서 등의 관련정보를 입력한다. 입력한 정보는 2주 후 자동 삭제되도록 조치했다.

방문 시 안내데스크에 부착된 QR 코드를 방문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핸드폰 미 소지자 및 QR코드 이용 거부자는 PC에 수기 입력해야 한다.

고양시는 청사 출입통제 QR코드 생성작업과 출입자 개인정보입력

PC설치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QR코드를 이용한 출입통제 이용절차 안내문 부착과 근무자 교육실시 등의 준비 작업을 끝낸 후 오는 5월 25일부터 코로나19 종식시까지 운영 예정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본관에서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향후에는 각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과 민간영역으로까지 점차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집단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정확하고 스마트한 방문자 인적사항의 관리"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논해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해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성태 기자

전국 30개 지자체 중 하남, 대전 서구 등 5개 지자체 선정

하남, 대전 서구, 충북 단양, 충남 아산, 전남 여수 5개의 지자체가 최종 선정

하남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공모에 대중교통 연계 '안심' 자전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자전거 정책 모델 개발을 위해 추진된 이번 공모에서 하남, 대전 서구, 충

북 단양, 충남 아산, 전남 여수 5개의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는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컨설팅 형식의 대면심사, 사업의 실효성과 터 지자체로의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과 CCTV 설치로 보안성을 확보한 하남시 '자전거 안심 주차장' 조성 사업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는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지방비 2억 1천 300만원을 매치해 총 4억 1천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 자전거 주차장'을 올해 안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이광희 기자

광주 사회적경제기업장애인단체 업무협약 체결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키로



(사)한국장애인부모회광주시지부와 지역사회 통합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기관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3기관은 당구스포츠클럽 사랑방을 통해 지역 장애아동들에게 당구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너른고을빌리어드클럽 협동조합은 월 2회(평일 1회, 주말 1회) 당구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한

양주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출산 가정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돋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양주시에서 출산한 가정과 출산을 앞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에게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육아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김승곤 기자

다면, 친환경 차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행거리의 감축률과 감축량으로 참여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은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인정하며 10만 포인트는 10만 원으로 환산해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낙지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이병기 환경관리과장은 "가정·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탄소포인트제가 자동차 분야까지 더해지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온실가스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성곤 기자

치매! 걱정마세요~ 도와드릴께요

치매 친화적 안심공동체 사업 운영 중 노인인구, 여건, 교육장소 고려해 지정

김포시 보건소(소장 강희숙)는 2018년 양촌읍 양곡 고다니8단지 마을을 시범으로 2019년 하성면 전류리 마을에 이어 올해는 통진읍 동을산리를 김포시 3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 치매 친화적 안심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치매안심마을은 노인인구, 지리적 여건, 교육장소 등을 고려해 신청에 의해 지정된다.

현재 코로나19로 치매조사, 예방교육 등 직접 대면사업이 어려워짐에 안심마을 사업 중 하나인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사업을 중점



바른 정보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한 게시판, 치매예방 3·3·3수칙 안내문,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 예방을 위해 화장실 내 어르신 안심 비상벨과 안전손잡이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구영미 북부보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안심마을의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치매조기발견, 예방관리 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나의 마을에서 오래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포/차덕문 기자

"소상공인 부담 덜고"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

지역화폐 결제 시 5%~10% 할인율
소상공인 점포는 수수료 지원 받아



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지역화폐 추가 할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고, 할인율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여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 가량의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최대 4만 3,000 여 곳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방식은 해당 점포들에게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을 지원하는 식을 이뤄진다. 보통 지역화폐 결제 시 결제금액의 0.7%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0억 5,000만 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2020년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했으며, 도내 상인연합회 등의 협조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내 소

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옷돈을 요구하는 등의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살아남아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을 이끌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켜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031-303-1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김승곤 기자

농협 파마스 마켓 안전한 먹거리, 행복한 쇼핑은 농협 파마스 마켓에서...

검색창에서 농협파마스마켓 검색하세요!!

<http://nhfm.co.kr>



- 농산, 공산, 축산품, 수산코너 외에도 로컬푸드, 즉석식품, 선식, 문구·완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약 1만명의 멤버를 보유하고 있는 영주농협 파마스마켓의 밴드를 통해 매주 행사 및 다양한 소식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밴드를 통해 공동구매도 시행하였고, 밴드 멤버분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농협파마스마켓 쇼핑몰 모바일앱이 개설되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신 후 손쉽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DREAMING WITH YOU AND NH
농촌과 도시가 서로 행복해지도록 영주농협이 함께 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약취도 잡고 에너지도 얻고

경북도, 가축분뇨 적정처리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충 총력

2022년까지 사업비 1,529억 투입, 7개 시군 7개소 신·증설

경북도는 도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현재 13개 시·군 15개소(1,550톤/일)가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1,529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7개소 중 7개소(800톤/일)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울릉군 구미, 영주, 봉화 3개소(360톤/일)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은 주로 정화처리* 또는 퇴·액비화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어지고 있다.

* 정화처리 : 협잡물 제거, 생물·화학적으로 수처리 후 하천 방류

도내에서도 현재 영천, 울진 2개소가 바이오가스화*로 운영 중이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통해 연간 8,248㎿(2019년 기준)의 전기를 생산중이다. 또한, 신·증설 중인 7개소 중 7개소(800톤/일)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 바이오가스화 : 가축분뇨를 혼기성 소화 후 바이오가스를 얻어 에너지화

특히, 성주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19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44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획득이며, 에너지화를 통한 가스 판매 등으로 운영비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확충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거시설과 인접한 축사의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해 도민의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경북도는 전국에서 한우생산량

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돼지(3위), 가금류(3위) 등 전국 최대의 축산업 중심지로서 가축분뇨 발생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며, “경북도에서는 이에 발맞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도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조 기자

영천시, 학생 가정에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등교개학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가정에 도움 될 것 기대

영천시는 경북도, 경북도교육청, 영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영천시 소재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정에 납품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친환경급식 농산물 계약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고 가정 내 식재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학생 가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 개학이 연기돼 미집행된 학교급식비 예산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40개교 7,570여 명 중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학생 가정에 3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19일부터 각 가정에 순차적으로 택배 배송 할 예정이다.

영천시 친환경농산물꾸러미는 햅양파, 깐 마늘, 고구마, 감자 등 7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18일 영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와 협동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 및 취급 작업장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납품 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계약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각 가정에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영천/한반식 기자

경주시, 신품종 사료작물 종자 생산 보급체계 구축

고품질 자급조사료 재배면적 지속 확대
수급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적극적 나서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사료작물 종자 수급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품종 다수확 사료작물 종자생산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육종한 사료용 귀리품종 3종(일한, 하이어리, 하이스피드), IRG 3종(그린팜, 그린팜2호, 그린팜3호)의 품종별 비교시험과 트리티케일 1종(조성·밀과 호밀 교잡품종)의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우리지역에 적합한 사료작물을 선발했다.

선발된 사료용 귀리(하이스피드), IRG(그린팜 3호), 트리티케일(조성)은 기존품종에 비해 수확시기가 빠



르고, 추위에 강하며, 수량성이 높다. 올해는 선발된 3종의 품종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종한 청보리(미호보리) 품종으로 신품종 사료작물 종자 채종단지(17㏊)를 조성해 약 53톤의 종자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최정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

역적응 시험을 통한 우수 품종 발굴을 위해 현장실증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사료비 절감과 한우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양가치가 높은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한반식 기자

‘포스트코로나’ 여성들이 나선다

경북도는 경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경북이 새로운 일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지원의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23개 소속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면회되었던 여성단체가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경북’을 위해 경북여성의 힘을 모아 지원할 수 있는 금년도 사업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여협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았지만 코로나19로 줄어든 관광객을 경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1단계-1타시도 여성단체’ 경북조정을 준비하기로 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북도/정승조 기자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우수 지자체 완주군, 전주시 방문
실정에 맞는 놀이터나 정책 도입



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보고 만지고 뛰어놀면서 풍부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전주시에서는 올해까지 총 10곳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경주시의 실정에 맞는 놀이터나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경주시, 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 특별지원

근로사각지대 노무 미 제공 근로자
최대 월 50만 원 지급…소급 신청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 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근로사각지대 노무 미 제공 근로자에게 최대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에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일부 또는 전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지난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및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문화예술 종사원, 건설기계운전원, 복지서비스 분야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종사자가 해당된다.

지원금 및 자격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와 5일 이상 노무미 제공 또는 코로나19의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전에

“저출산시대” 문경시에 여섯째 복덩이 탄생

출산장려금 3,000만 원 지원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추진키로

문경시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섯째 아이가 태어났다. 관내에서 식당(이가네생고기)을 운영하는 이모(45), 성 모(44) 부부는 지난 4월 29일 건강한 아들을 얻어 4남 2녀의 부모가 되었다.

보건소는 임산부 등록을 하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전검사, 염산제와 철분제 지원,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양육을 돋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첫째 360만 원, 둘째 1,400만 원, 셋째 1,600만 원,



넷째이상 3,000만 원을 지급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가족전용비를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건강보험을 가입해 주며, 저소득가정에는 영양플러스 보조식품을 제공하는 등 많은 가정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경/장성우 기자

문경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성과평가

도농복합형 부문 전국 1위 선정 폐거 통합관리시스템 입력데이터 활용 평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능력 평가에서 문경시가 시군구체육회 도농복합형 부문 전국 1위에 선정돼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됐다.

19일 문경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에서는 전국 시군구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매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은 생활체육지도자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데이터를 활용한 절대평가이다.

문경시는 생활체육 교실 참여자율과 신규 생활체육교실 참여기관 비율을 포함한 사업역량과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선정되었다.

문경/장성우 기자

봉화군, 체험·휴식·즐거움 주는 오감만족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우드스쿨 준공으로 목공전문실습교육 충족기대

웰빙시대 생활목공예 체험객들에게 큰 기대 줘

주요 시설은 목재의 종류와 특성, 생활속 목재의 쓰임새, 목재의 생산 과정과 종류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실 있고, 춘양목의 우수성을 알아볼 수 있는 흥보영상실 및 목재 도서관이 있으며, 간벌목과 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책꽂이, 저금통, 보

석상자 등을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 할 수 있는 목공체험실 등을 갖추고 있어 친환경적인 소재의 나무 이야기와 다양한 체험거리 및 볼거리로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한, 아외에는 울창한 장평산림 육장이 있어 춘양목 소나무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듬뿍 뿐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고,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연못정원, 다양한 식물들을 계절별로 관찰할 수 있는 자생식물단지, 탐방로와 휴게시설, 잔디광장, 야외교육장 등이 용도별 시설을 갖추고 있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교육, 유치원, 초·중·고의 체험학습 및 자유학기제 활동, 경북유아숲지도사 자격증반 실습, 외국인 유학생 패턴어 등 다양한 교육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빼어나 시설과 환경을 가진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은 춘양목 나무사랑 학교와 같은 우수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016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 우수사례 20



복합 체험장으로 지역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봉화/정승조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 생계비 1인당 50만 원 지급

부산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총사업비 16억 원,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지급

부산시는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접수가 오는 21일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부산문화재단을 통해 예산소진 시까지 1차 (5.21.~6.3.)와 2차(6.19.~7.10.)로 나누어 접수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증명을 기 취득한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는 1차에 이어, 추가 신청까지 고려한 데에는 공고 이후 예술인 활동증명을 간증·신규로 득하는 예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2월 21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예술인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가 해당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예술단체(극단, 무용단 등) 소속 직장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와 미원편의 차원에서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현장접수의 경우, *5부제를 적용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부산문화재단을 방문·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스코로나19 부산 최초 확진일(2월 2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문자로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1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미리 구비하여야 한다.

예술인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하여 신속성, 편의성, 투명성과 더불어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원활한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동백전 카드 발급 또한 필수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산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 및 부산의 지역문화예술을 위하여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예술인 모두 힘을 합쳐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 신청을 자제하고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지원책이 마지막 대책은 아니고 정부에서 예정된 문화예술인 대상 지원정책들 외에도 부산시 차원의 추가적 생계지원금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김영찬 기자

경남도, 중앙아시아 5개국, '함양산삼엑스포' 찾는다

한·중앙아친선협, 입장권 구매 약정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보탬 될 수 있을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사)한·중앙아친선협회(회장 이옥련)와 예매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한·중앙아친선협회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국인 관람객의 엑스포 입장권 2,000매를 약정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약정식에는 장순천 조직위 사무처장, 이옥련 한·중앙아친선협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중앙아친선협회 이옥련 회장은 "한·중앙아친선협회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5개의 국가들과 교류협력을 하고 있어 함양산삼엑스포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구매 약정식을 계기로 더 많은 중앙아시아 5개국 국민과 한국 거주 교민들이 엑스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돋겠다."고 하였다.



장순천 조직위 사무처장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한·중앙아친선협회의 관람객 유치 협력과 입장권 구매는 엑스포 성공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중앙아시아 5개국을 비롯해 엑스포를 찾는 많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불거리를 개발하는 등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내실 있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간 정부공인 국제행사로서 개최되는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스포의 입장권 예매는 티켓링크, nh농협, 엑스포조직위에서 가능하며, 1차 예매 기간인 6월 30일까지는 최대 60% 할인된 가격(성인6,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예매권 및 입장권 소지자는 엑스포 기간 중(일부는 예매시부터 엑스포 종료시까지) 경남도 내 16개 시군 숙박 및 유료 관광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할인대상 시설과 할인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사자 등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산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 및 부산의 지역문화예술을 위하여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예술인 모두 힘을 합쳐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 신청을 자제하고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지원책이 마지막 대책은 아니고 정부에서 예정된 문화예술인 대상 지원정책들 외에도 부산시 차원의 추가적 생계지원금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김영찬 기자

부산시, 자체 최초 남극방문 사진전시회 개최

체험탐험대, 동북아 극지관문도시 도약
사진전 통해 동북아 극지관문도시 지향



부산시와 (사)극지해양미래포럼은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부산시 남극체험탐험대' 사진 전시회를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부산시청 지하철 연결통로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월, 남극 세종과학기지 관문도시 마젤란주와 극지 협력 MOU를 체결하고 남극 세종과학기지로 방문한 바 있다.

(사)극지해양미래포럼은 지난해 12월 '극지상식 골든벨대회'와 심층면접을 통해 부산지역 청소년 4명을 선발, 포럼 소속 해설사 등과 함께 전국 지자체 최초 남극체험대를 구성했다.

부산시 해양수산물류국장(박진석)이 동행한 남극체험탐험대는 1월 26일 부산을 출발하여 현지시간 1월 28일(한국시간 1월 29일) 마젤란주와 극지협력 MOU 체결, 칠레 남극연구소 및 세종과학기지 방문, 칠레 에스쿠데로 남극기지

개소 25주년 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전시회는 전국 지자체 최초 남극방문을 기념하여 시민에게 생소한 펭귄, 해표, 물개, 스쿠야 등 남극을 대표하는 동물들과 남극 세종과학기지 중심으로 한 남극 풍경, 체험탐험대원들의 활동 등을 기록한 40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회 기간 동안 (사)극지해양미래포럼 소속 해설사들이 사진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극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전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극지 관련 책자 및 기념품 등도 배부할 계획이다.

부산김영찬 기자

거제시, 6년 만에 '마을기업 탄생'하다

토바기협동조합, 6년 만에 선정돼
유자막걸리 활용 상품·체험교육 개발

거제시에 마을기업이 탄생했다.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거제시는 2020년 경남도 제2차 마을기업 공모 심사에서 '토바기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남도의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서 발급 및 대상자 선정, 보증심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3~4주 소요되던 자금실행기간도 2~3주로 일주일 빨라지게 된다.

원스톱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증기관의 해당 지역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금지원 신청과 신규보증서 발급, 그리고 은행과의 대출상담을 모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신규보증서 발급이 아닌 담보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사용하려는 기업은 기존 방식대로 협약은행의 대출상담을 거친 후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 사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과가 기대된다.

특히 최은조 대표는 과거 대형 주류 회사에 밀려 안티깝게 폐업했던 100년 전통의 '장승포막걸리'공장의 후예로 실제 15년간 해당 공장을 운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이다.

거제시와 '토바기협동조합'은 5월 안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옥포동에서 목재를 활용한 굿즈사업과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주)제이메이커도 청년형 마을기업에 도전해 이번 경남도 심사를 통과했으며 6월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마을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교육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만큼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마을기업 교육과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김영찬 기자

세계연합신문 서클포커스

<http://wunionnews.com/>

회장 송원기

발행·편집인 추교진

인쇄인 현재오

대표전화 : 1899-2026 팩스 : 02-558-2289

E-mail : mbc0300@gmail.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42

2019년 10월 15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34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2026 / 구독료 : 월 15,000원 -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배움이 있는 교실, 변화하는 학교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 복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교육장 이예걸



장흥군,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정 접수

2020년 9월 13일 진정 접수 마감

유가족 시일 놓치지 않도록 홍보 활동

장흥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사망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서」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장흥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분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하였으며,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

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 대상으로 읍·면·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주변에 군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물론, 기관 소식지 또는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간담회, 행사·교육 등 개최 시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대상 교양·문화 교육, 예비군·민방위 훈련 등

장흥군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맷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가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다.

장흥/김종현 기자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강력 대응'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기동 접점반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 운영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각종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부정 유통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상품권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결제 거부, 추가 수수료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기동접점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업소에 대해서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수수료와 할인지원금 환수조치, 국세청 세무조사의뢰,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률에 의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가맹점과 상인회 등에 준수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부정유통 예방 홍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보 노력도 지속 추진해 가맹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3천여 개에서 현재 5천여 개로 늘어났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과 지역상생을 위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시청 지역경제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대표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여수/김상면 기자

영암,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설치

영암군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약 1억여원을 투입해 다양한 종류의 안내시설물을 설치 중이라고 밝혔다.

금번에 설치하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 및 건물에 대한 위치 등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물로, 320개소(보행자용 도로명판 203개, 차량용 도로명판 11개, 기초번호판 72개, 국가지점번호판 34개소)를 설치중에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으로 군민들이 편리하게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 정착을 위해 5

일시장 흥보 및 거리 캠페인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암/이영석 기자

“스포츠·의향·안전·친환경 ‘4메카 장흥’이 온다”

안정적 지역 성장발판 마련 방침 “4메카 장흥 가시화로, 일자리 창출”

정종순 장흥군수가 스포츠, 의향, 안전,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4(four)메카 장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맑은 물, 푸른 숲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자원에 4가지 핵심 동력을 장착해 군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스포츠메카를 추진하게 된 데에는 장흥군의 온화한 기후와, 산, 들, 바다를 두루 갖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지역적 장점을 활용해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와 함께 훈련팀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에는 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 최종 후보지로 낙점되며 스포츠메카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체육인 교육센터 운영이 시작되면 연 6만 5천명 이상이 장흥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52억원으로 전망된다.

장흥은 '의향'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먼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 해동사가 장흥군 장동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시발점인 희령진성, 정경달 장군의 반계사,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동학 최후 격전지인 석대들 등 다양한 역사적 자산도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다. 군은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의향메카 장흥'을 꿈꾸고 있다.

의향메카 육성의 중심에는 안중근 의사 역사·문화체험공간 조성사업이 있다. 2021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 42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70억원이 들어간



시는 배수지 청소 기간 중 불가피하게 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마을방송 및 흥보지 배부 등을 통해 단수예고 흥보를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순천시 이정수 상수도과장은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단수지역 시민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단수는 수돗물 사용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실시할 예정이지만 가정과 업소에서는 비상용 물을 충분히 확보해 놓는 등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드랜드 인근의 10만m³의 부지에는 안전테마파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재난 상황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테마파크로 각종 체험과 교육, 전시 기능을 담당한다. 안전테마파크가 들어서면 학생, 관광객, 의소대원 등 연간 10만여명의 방문객이 '안전메카 장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메카 장흥'은 장흥군 민선 7기의 숙원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군민 소득 두 배' '풍요로운 농어촌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흥군은 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확대와 지역 특성을 살린 블루오션 농어업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 면적은 전체 농지면적의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흥/김종현 기자

순천시, 양질 수돗물 공급 상수도 배수지 청소 실시

순천시(시장 허석)는 5월 15일부터 28일간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가압장 배수지 청소를 실시한다.

상반기 가압장 배수지 청소는 15일부터 조례동 연동배수지를 시작으로 6월 11일까지 46개 상수도 배수지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시는 배수지 청소 기간 중 불가피하게 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마을방송 및 흥보지 배부 등을 통해 단수예고 흥보를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순천시 이정수 상수도과장은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단수지역 시민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단수는 수돗물 사용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실시할 예정이지만 가정과 업소에서는 비상용 물을 충분히 확보해 놓는 등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시에서는 사전 생활용수를 확보하지 못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상 급수차량(5톤)과 순천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순천만 청정수'도 확보해 대비하고 있다.

청소 후 통수과정에서 적수 발생 등 상수도 관련 불편사항은 순천시 상수도과(061-749-6563~6567)로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순천/최종기 대기자

여수시, '노외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일부터 7월 말까지 노외 공영주차장 25곳에 대해 2시간 무료이용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관내 노외 공영주차장 25곳이며, 관광 성수기인 6월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오동도 공영주차장을 제외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노외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이용을 결정했다.

여수/김상면 기자

이번 조치로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동도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30개 공영주차장 전부에 대해 종식시간 2시간 무료 이용을 추진해 왔다.

또한 시는 지역적인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택 및 상가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시간대 무료 운영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학동상가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여수/김상면 기자

장성군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한다”

생활·영농폐기물 소각행위 화재위험

점검반 구성해 5월까지 단속



장성군이 5월 중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행위로 환경오염과 화재위험 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다.

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특별 점검기간에 맞춰 군 자체점검반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불법소각 행위 점검에 나서고 있다.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 중 소각행위 적발 시 확인서 징구,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농민들이 농업활동 중 발생한 농업 부산물의 처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소각을 실시해 산불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 농약병 등 의 영농폐기물은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하며, 고춧대, 토마토 줄기 등 영농부산물을 잘게 부순 후 결착지에 살포해 퇴비로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소각행위 단속을 통해 화재의 위험을 줄이는 한편, 주민들에게 관련법을 홍보하는 등 계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박태지 기자

순천시, 3년 연속 '전남도 지방세정' 최우수기관 선정

재정인센티브 8천2백만원을 확보

시민 협조와 직원들 노력으로 성과



순천시가 2020년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장·상금·포상금 8천2백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순천시는 2018년~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 35개 항목에 대해 20

장성군,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무자격 체류 외국인 간담회’ 개최...포용적 방역 대책 강구

5월 15~22일 ‘집중방역 조치 기간’ 운영...단속 유예

장성군이 외국인근로자 집단생활 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집중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15일 보건소에서 ‘무자격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장성군다문화협의회, 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무자격 체류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방역 대책을 강구했다.

특히 무자격 체류 외국인 대부분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나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으로 검사를 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논의 했다.

군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강제주방이나 처벌 등 불이익 없이 견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달 15~22일까지 7일간 ‘집중방역 조치 기간’을 운영한다.

무자격체류외국인에 대해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하고, 주후 단속을 재개하더라도 진료기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15일부터 외국인 고용 사업체, 외국인 집단 거주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현장 조사 및 방역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방역활동은 외국인단체(장성군다문화가족협의회)와 함께 민관 협력



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개인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예방 위생수칙을 홍보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 의무 면제를 통

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을 방역망으로 유도하겠다”며 “군민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성/박태지 기자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올 가을 전주에서!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 개최지로 확정
10월 30일~11월 1일 5000여명 참여

전국의 스포츠클럽이 서로의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다지는 스포츠 문화대전이 올 가을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18일 대한체육회의 ‘제5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의 개최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172개 공공스포츠클럽 5000여명이 참여해 배드민턴, 농구, 탁구 등 12개 종목의 경기를 전주에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지역 공공 스포츠클럽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스포츠클럽 사업을 활성화하고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매년 전진 행해왔다. 시는 이번 유치로 2016년 1회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 대회를 진행하게 됐다.

시는 교류대회 유치를 확정함에

따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시는 올림픽이나 전국체전과는 달리 지역사회와 일상생활에 기반을 두고, 문화와 예술, 관광이 어우러지는 스포츠 문화대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화합의 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특히 시는 문화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격조 높은 교류대회로 개최함으로써 국가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전주의 역량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약 15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유입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를 방문해 주시는 전국의 스포츠인들이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 스포츠클럽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주/이재만 기자

영광법성포 단오제 행사 취소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6월 24~28일까지 5일간 개최 예정이던 ‘2020 영광법성포단오제’의 공식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식행사는 취소됐지만 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6월 24~27일까지 제전행사(용왕제 산신제, 당산제, 선유놀이)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축소 진행할 예정이며 단오제의 성공을 사전에 기원하는 제인 난장트기는 단오 1개월 전인 5월 25일에 진행된다.

영광/노경태 기자

무안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연1회 무료로 치아 스텔링 시술을 제공
흡연으로 생기는 구강질환 예방하기 위해

구례군은 흡연자에게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료 스텔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료 치아 스텔링 시술을 제공받은 흡연자에게는 개인별 맞춤 구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구강보조용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보건의료원(☎ 061-780-2044)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강운철 기자

고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되도록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9년 기준 외국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동기(1/4분기) 대비 매출액(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율 대비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 할 예정이다.

무안/김판국 기자

여수(구)미평역사, 자전거 시민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여수시, 행정안전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국비 지원 사업 선정

전라선 옛 철길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구)미평역사가 자전거 시민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여수시(시장 권오봉)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공모 추진한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여수시가 선정되어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가 다양한 자전거 정책 모델 개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여수시는 구)미평역사를 시민을 위한 자전거 문화 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을 신청해 전국 5개 지자체에 최종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자전거가 더 주목받고 있다”며, “자전거 문화센터 시설이 시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친환경 자전거 도시로서 UN기후협약당사국총회 유치에도 상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금년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자전거가 더 주목받고 있다”며, “자전거 문화센터 시설이 시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친환경 자전거 도시로서 UN기후협약당사국총회 유치에도 상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해안을 끼고 달리는 명품 자전거길과 옛 전라선 철길 자전거 도로, 공유 자전거 ‘여수랑’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전거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여수/김상면 기자

담양군, ‘귀농 청년 농부 트랙터 지원사업’ 최종 선정

담양군 오수빈 씨 선정, 기증식 열려
어려운 환경 속에 노력하는 청년 농부



담양군의 귀농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 농부에게 트랙터를 무상지원하는 ‘귀농 청년 농부 트랙터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동양물산 기업(주)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귀농 청년 농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귀농 청년 농부 트랙터 지원사업’에 오수빈(27세) 씨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수빈 씨는 2017년에 어머니 건강을 되찾으려 광주에서 팔기를 재배하는 지인이 있던 담양으로 귀농했다.

지인의 팔기재배를 어머니와 오수빈 씨도 종종 같이 도왔다. 여유롭고 조용한 귀농생활 속에서 어머니 건강이 차츰 회복되었고 농사에 흥미도 생겨 이를 계기로 팔기 농사에 뛰어들었다.

현재는 팔기 3동을 경작하며 대학 생인 동생의 학업지원을 하고 있으

며 본인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교에 진학해 농사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수빈 씨 같은 젊고 열정적인 농부가 귀농해 담양 농촌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담양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년 농부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귀농인은 경기 1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1명, 전남 2명, 경북 2명, 경남 1명 등 총 10명이다. 선정된 귀농 청년 농부에게는 트랙터를 지원한다.

담양/김용학 기자



자연을
가는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www.guryelocalmarket.com

구매 문의 ☎ 061)780-8294



문기주

경제칼럼-16회



▲ 문기주 회장

● '활성화 대책' 적극 강구를

골목상권이란 '큰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에 형성된 좁은 골목에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대로변이 아닌 거주지 안의 좁은 도로를 따라 형성되는 상업 세력의 범주를 말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골목상권을 발달상권과 전통시장상권 영역을 제외한 점포를 기준으로 도로에 위치한 점포가 30개 이상인 영역으로 골목상권을 설정했다.

2,000년대 이후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잡식 문제가 불거지며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본격화했다.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에 침투했다.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본격화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으로 영업시간 제한, 격주 일요일 의무 휴업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언젠가부터 짧은 세대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일하며 일상을 여유롭게 즐기고 이웃과 소통하는 삶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소비의 공간도 도심의 상업 지역에서 동네 상권으로 옮겨졌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거주지의 삶의 질이 아파트 브랜드만큼 중요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식의 세대적 변화와 맞물리는 현실에는 수많은 복병이 곳곳에 돌출되어 있어, 여전히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한다.

골목상권 소생과 활성화의 주축이어야 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척박한 위상은 어떠한지 심각한 물음표를 연신 제기하게 만든다.

● 대형마트 1곳에 '동네 점포 22곳 폐업'

골목상권 활성화 '도전 과제들'

먼저,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올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24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의 금년 2~3월 중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8% 급감하고, 평균 순이익은 44.8%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4개 골목상권 업종(가구점업, 간판업, 과일가게업, 금은방업, 화훼업, 대리운전업, 떡집, 문구·음반업, 미용업, 부동산업, 사진앨범업, 세탁업, 수퍼마켓, 여관업, 유통업, 연료·설비업, 의류점업, 인테리어업, 자동차수리업, 제과업, 주유소업, 철물·공구업, 음식점업, 택배업) 관련 협회·조합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30개 점포 이상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육성함으로써 개별 점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권별로 전담 매니저를 맡칭해

조직 구성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밀착형'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각 전담 매니저는 조직화된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분석 및 컨설팅, 경영교육, 현장체험,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오는 2022년까지 총 252억 원을 투입해 최종 300개의 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혁신적 사례를 소개한다.

골목상권에서 창업하려는 시민과 기존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다 정확하고 고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개편해 올해 2월 7일 정식 오픈했다. 정보제공 업종을 45개에서 100개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동 단위 투자수익률과 손익분기점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특정 건물·길 단위 소비여력이나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신규로 선보인다.

독서실, 반찬가게, 동물병원, 복지장, 여행사 등 서비스업과 소매업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업종별 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 분석 기간도 기존 분기별로 더해 월 단위로 세분화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영성과 측정기준 중 하나인 '투자수익률'과 '손익분기점'도 추가로 서비스한다.

● '지자체 골목상권 부활에 총력전'

대기업 계열 유통매장들이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계약직·파견직이기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한다.

골목상권을 지켜주면 지역 주민들이 소비를 공유하고 가족들까지 혜택을 입는다.

그럼에도 금융지원 외에 컨설팅 및 상권분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한결같이 '신세계 이마트, 현대, 롯데 등 대기업등으로 걸친 상생을 말하면서 무자비하게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1곳이 들어서면 동네 점포 22곳이 폐업된다는 수치가 나와 있지만 골목상권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훨씬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들 업체는 한결같이 '신세계 이마트, 현대, 롯데 등 대기업등으로 걸친 상생을 말하면서 무자비하게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1곳이 들어서면 동네 점포 22곳이 폐업된다는 수치가 나와 있지만 골목상권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훨씬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려면, 대형유통망을 상대로 경쟁력 열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경영지원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골목상권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과잉진입 문제의 해결과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방해하는 두 가지 제도적 요인들의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 복합쇼핑몰의 경우, 초기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

현행처럼 이미 입점을 한 단계에서 거리 제한이나 의무휴업 등의 제재만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아마도 자영업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도 임대료 인상과 불공정거래 관행, 대형쇼핑몰 및 신도시 중심 지역 개발, 대기업과의 경쟁열위 등 일 것이다.

골목길의 문화자산을 확충하고,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골목상권 창업을 지원하여 필요 인력을 훈련·육성하고, 골목길 연결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골목상권 위기의 원인으로는 특히 임대료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국내외 사례는 다양한 임대료 정책을 제시한다.

임차인 권리 강화와 임대료 인상 규제가 가장 빠르게 임대료를 억제하는 방법일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직접적 보호 제도를 유지하고, 간접적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이들의 실패나 구조조정에도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폐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층 건물, 걷기 편한 거리, 주거지·상업시설이 공존 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 디자인,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을 통한 접근성 개선은 정부가 비교적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는 미술관과 공방 유치, 적정 임대료의 유지, 개성 있는 가게를 창업해 골목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 고양 등을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일궈내기 힘들다.

주민·상인·예술가·청년창업가 등 골목길 주체들의 협력과 동참이 필수적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골목문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특성과 연결된 고유한 콘텐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의혹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지만 윤 당선인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미국 경기 회복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회복 과정이) 내년 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V자형' 반등 전망에 쇄기를 박은 셈이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68.3%가 'U자형'보다 훨씬 회복이 더딘 '나이키형'이 될 것이라고 담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탓에 경기가 조기에 회복되리라는 기대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2차 대유행까지 거론되는 만큼 경기 침체의 충격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정책은 재정 살포 위주의 단기 처방에 끌려 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기업 스스로 불황을 헤쳐갈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처방을 함께 단행해

사설

경제회생은 과감한 노동·규제 개혁서 시작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미국 경기 회복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회복 과정이) 내년 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V자형' 반등 전망에 쇄기를 박은 셈이다.

수도권 규제는 서울·인천·경기지역의 경제력 집중과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묵은 규제가 기업과 일자리를 해외로 내몰다는 지적에 정부가 귀를 기울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기준의 안이한 시각으로 대처하려 해선 안 된다. 미·중 무역전쟁까지 재점화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

장기 침체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책은 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노조도 자기 밥그릇만 보지 말고 외환위기 때처럼 거국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가 요즘처럼 우리 경제에 절실히 다가온 적이 있는가.

개인계좌 공개해야 할 윤미향 당선인

정의의 기억연대 대표를 지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012년 경매에 부여진 2억원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해 자금 출처 의혹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은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밝혔다가 다시 예·직금을 깨고 돈을 빌렸다고 말을 바꿨다.

아파트 낙찰이 기존 아파트 매각보다 9개월이나 먼저 이뤄진 데다 등기부등본에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없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명을 바꾼 것이다. 윤 당선인이 경매자금 조달 경위를 대지 못하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윤 당선인은 2014년에도 베트남 우물 파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개인 명의 계좌로 175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베트남 측에 전달한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만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안성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1억원도 업계에서는 "공사비용이 부풀려졌다"는 반응이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 제기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당을 해치고 국민 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eTEC 이테크 건설

이테크건설은
고객이 꿈꾸는 이상과 가치를 실현합니다

기획특집

부동산임대차·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부동산 거래, 곳곳의 복병, 지뢰부터 피하라!!



믿고 사는 세상! 정말 좋은 말이다.
그런데 믿고 살다가 낭패를 볼 때가 있다.
그것이 가족의 보금자리와 관련됐다면 상실감은 더 클 것이다.
믿을 때 믿더라도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지식은 알고 있어야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전세를 들어갈 때, 집을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 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는 십중팔구 임대차계약이다. 가장 큰 차이는, 전세는 물권1)이고 임대차계약은 채권2)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법에서 말하는 전세는 우선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고 후순위권자 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매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 등 전세권에 버금가는 효력이 발생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① 계약 기간 동안 편안하게 살고 싶다.
② 나중에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고 싶다. 전세를 구할 때는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이다.
등기부에 소유자 말고 다른 권리자가 올라와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전세권 등기와 맞먹는 힘이 있다

▲ 사례

가정만(가명) 씨는 전세자금 1억 원으로 집을 구하려 달렸다.
마침 교통편이 좋은 곳에 아파트(시세 약 2억 원)가 싸게 전세로 나온 것을 보고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 집주인이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놓았던 것이다.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자 ○○ 은행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집을 살 때 은행에 융자를 얻은 것인데 다 갚아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안심해도 될까? 대출을 안고 집을 사는 문화가 자연스러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많다.
물론 집주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은 대출 잔액이 아니고 은행에서 최대한 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저당권이란 부동산에 일정한 금액에 대한 담보를 잡아놓고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등기로 성립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게 근저당권인데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근저당권이 저당권과 다른 점은 담보금액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매달 대출금을 갚는다면 잔액은 계속 줄어들 것이며, 반대로 대출금을 연체한다면 금액은 늘어날 것이다.
그때마다 등기부를 수정해야 한다면 번거로움은 이루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준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는 또 다른 문제는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니 설불리 이사를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때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등기부에 권리를 옮겨놓는 제도이다. 일단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는 이사를 가도 종전의 권리가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월세인 경우 세를 계속 내야 한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야 그때부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

▲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① 전세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를 통해 이상이 없는 집인지 확인한다.

②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최대한 서둘러서 처리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주소(동, 호수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③ 그래도 불안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는다. 단,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고 등기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④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이사 가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권리가 옮겨놓는다.

▲ 사례

김용해(가명) 씨는 10년간 서울에서 전세를 살아왔다. 지긋지긋한 전세살이를 벗어나고자 경기도 파주에 있는 단독주택을 물색하다가 적당한 집을 알아냈다.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해본 김 씨는 고민에 빠졌다. 가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내가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 임시로 올린 가등기는 별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계약을 독촉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임대차(전세) 계약 때보다 몇 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 재산을 순식간에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 전에는 부동산등기부 뿐 아니라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시청, 구청 등 자치단체에서 발급), 토지이용확인서 등의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소유권 등 부동산의 권리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지만 면적, 용도,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는 데는 나머지 서류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땅을 살 경우 거래제한이나 도시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이웃주민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요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다.

최근 일부 사기꾼들은 개발예정지를 싸게 판다는 말로 일반인들을 꾸드려 아무런 쓸모없는 땅을 사게 만드는 수법으로 돈을 벌기도 한다. 그나저나 김 씨는 이 부동산을 사도 상관이 없는 걸까?

천만의 말씀. 만일 주변에 가등기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해야 한다.

당장 김 씨가 부동산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뒤에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등기소는 나중에 집을 구입한 김 씨의 소유권을 지워버린다.

가등기권자가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김 씨가 가등기 권리자를 몰랐다고 해도 부동산의 권리가 주장할 수 없다.

전주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만 남아 있을 뿐이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가등기가 밀소된 후에 거래를 해야 한다.

가등기란 헛날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놓는 등기. 부동산을 사기로 했으나 사정상 곧바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매매예약) 사람이나,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으면 부동산을 넘겨준다(대물변제)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통 가등기를 해둔다.

가등기를 한 시점의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다.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소유권 이전)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한 등기는 효력을 잃게 된다.

등기부 등 각종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 절차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 매매계약서에는



◇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

◇ 부동산 소재지와 내역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매매대금과 지급 일자

◇ 소유권 이전하는 날짜

◇ 계약의 해제와

그 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특약사항) 등을 적는다. 특약사항 중 상대방이 정한 사항은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고 매수자가 정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공동소유(지분 2분의 1 등으로 표시된다)인 경우 공유자 모두와 함께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소유자가 수 없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계약 당일 주고받은 계약금은 마음이 변해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돌려받지 못한다. 매도인(파는 사람)도 그 2배를 돌려주어야 하니 이 점을 감안하여 액수를 정한다.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고 훗날 분쟁에 대비하여 입회인을 참석시키는 방법도 좋다.

▲ 잔금지급과 등기서류교부는 동시에 하라

계약이 성립됐다면 마지막 단계는 등기절차이다.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매도인이 돈을 모두 받고도 인감이나 등기필증 등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매수인은 혼자서 등기 이전을 할 수가 없고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판결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돈을 주어야 한다.

부동산 이전등기는 개인이 할 수도 있으나 큰 금액이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나 훌륭한 등기를 할 생각이라면 서류 작성법과 구비서류 등을 미리 충분히 알아보는 게 순서다.)

▲ 부동산매수인이 알아야 할 내용

① 부동산에 다른 권리자가 있는지, 부동산 이용에 제한은 있는지 살핀다.

② 계약은 반드시 소유자와 직접 하고, 위임받은 사람이 나올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한다.

③ 잔금을 주기 전에 다시 한 번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다.

④ 부동산 대금을 전부 치르는 동시에 등기 서류 일체를 넘겨받는다.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서류까지 넘겨받았다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만 남았다.

▲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과 수수료

매수인은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음 소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할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세금의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1. 취득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자치단체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 납부.

2. 등록세

재산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2만~35만 원.

4.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부동산등기 시 증지, 국민주택채권 등

/부록 1





세상을 바꾸는 금융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뒤엔 국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뤄내고
20개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노하우를 배우려 하는 나라
모든 하늘길이 막혔어도, 예외적으로 입국허가를 받는 나라
그 뒤엔, 국민이 있습니다

더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양보하고
따뜻한 기부와 자원봉사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국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헤쳐나가는 국민의 모습이
70억 세계인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자랑스러운 국민 곁에
KB금융그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KB 금융그룹